

2019년 동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

후기 에세이

연수 기관	일본 다이코-IWS(히로시마)
연수 기간	2020.01.14(화) ~ 01.17(금) 3박 4일
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학번	201720785
이름	박현경

2019년 동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 후기 에세이

201720785

소프트웨어학과

박현경

목차

1. 서론
2. 연수 내용
 - 연수 일정
 - 명함 교환
 - 데이터 센터 방문
 - 전화 응대
 - 보고서 작성
 - 프레젠테이션 발표
3. OJT를 마치며

1. 서론

이번 동계 OJT 인턴십은 일본 IT 기업인 '다이코-IWS' 기업(히로시마)에서 진행되었고 명함 교환, 전화 응대 등 신입사원에게 하는 연수도 배울 수 있었고 '다이코'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책과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는 일본어를 사용해 직접 듣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듣고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다이코-IWS의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히 알려주셨고 교수님과 함께했던 인턴 동료들 덕분에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기업에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OJT 인턴십 신청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의 OJT 레포트를 읽고 OJT 인턴십을 추천한다는 글과 레포트의 내용이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후배님들이 제 레포트를 읽는다면, 이 레포트가 OJT 인턴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방학부터 OJT 일정 전까지 회화와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무엇보다 OJT 인턴십을 통해 짧은 기간에 다이코가 어떤 기업인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과 OJT 연수를 통해 일본 기업 취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OJT 연수 첫날에 들은 말은 '이번 연수를 즐겨주세요!'였습니다. 많은 후배님들이 OJT 인턴십을 통해 많이 배우고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2. 연수 내용

- 연수 일정

1/14(화)	1/15(수)	1/16(목)	1/17(금)
-회사 소개 -명함 작성, 교환 연수 -선배 교류 시간	-전화 응대 연수 -시큐리티(보안) 연수 (ISMS에 대하여) -데이터 센터 견학 -보고서 작성	-커피 연수 -전화 메모 작성 -프레젠테이션 시료작성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시료작성 -프레젠테이션 (주제 :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기. 10분 정도의 분량) -인턴십 레포트 작성

- 명함 교환

연수 첫날에 OJT 인턴십에서 쓸 파일들이 들어있는 USB를 받아서 배정받은 컴퓨터에 전부 옮겼습니다. 그중 다이코 기업 로고가 들어간 명함 파일이 있었는데, 이름 쓰는 곳에 제 이름을 한자로, 영어로, 후리가나로 적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함께 인턴을 하는 동료들과 연수 동안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신 히라타 씨와 함께 명함 교환 연수를 했습니다. 명함을 교환할 때는 명함 케이스 위에 상대방 쪽에서 읽기 편하게 명함을 둔다는 점을 배운 후 거래처와 명함을 교환하듯이 회사와 소속, 이름을 밝히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는 연수였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면 자신의 명함을 가지고 인사를 할 일들이 많을 것이기에 미리 회사에서 연습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히라타 씨께서 연수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명함을 교환할 사람이 많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 편이 좋을지나 일본어 회화책에서 거래처 명함을 받을 경우 '頂戴いたします'(초다이이타시마스, 잘 받겠습니다)를 말하는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명함 교환 시에도 말하는 편이 정중한지 등 다양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연수 동안 놀란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연수 내용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글과 그림이 있는 매뉴얼이 있으니, 무슨 연수를 할 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함 교환 연수 역시 히라타 씨로부터 사전에 받은 명함 교환 매뉴얼을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 데이터 센터 견학

수요일 일정은 오전에는 회사의 보안에 대한 연수를 들었고 오후에는 데이터 센터를 견학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번 인턴십에 새로 추가된 연수였는데,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기에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이코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큐리티가 굉장히 높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해줄 여권을 제시했고, 엘리베이터 이동 시에 출입증이 필요했고, 건물 내부에 들어갈 때마다 출입증과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방문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보안 교육을 담당하셨던 마츠모토씨와 데이터 센터 방문 및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신 스에오카 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보안은 회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의 높은 보안성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으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보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전화 응대

히라타 씨께서 거래처 역할을 맡아주시고, 저희들이 다이코 직원이 되어 전화 응대를 하는 연수였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있어도 전화로 들은 내용을 빨리 메모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연수보다 일본어를 말하고 쓸 일이 많았기에 실제로 업무를 배운다는 느낌이 드는 연수였고, 전화를 한 상대의 정보와 전화 목적을 재차 확인하는 연습 덕분에 회사에서 전화 응대 시 필요한 기본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화 응대 경험을 바탕으로, 목요일에는 각자 쓰기 편한 전화 메모를 워드로 만들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수요일, 목요일은 일과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금요일은 자유 형식으로 인턴십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체로 먼저 표를 그려 일과를 정리하고 그중 3~4개의 항목을 골라 각 항목당 3~4개의 연수 내용과 감상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보고서는 첫날 회사 소개를 진행해주신 이시우에 씨와 스미다 씨께서 검토하신 후,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일본어로 작성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의외로 의미가 통할 거라 생각하며 썼던 단어들이 일본인의 시각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다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조언으로는, '보고서는 전부 동사로 끝내 통일성을 주는 편이 좋다, 이 단어는 부자연스럽다, 嬉しいでした -> 嬉しかったです' 등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어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물어봐 주셨기에 제가 어떤 의도로 그 문장을 사용했는지 얘기할 수 있었고 좀 더 제 의도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단어와 표현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개별 발표였고 주제는 '大学で学んでいること'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란 주제가 조금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학교 과제로 만든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추가하니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과제 결과물을 캡처해서 만든 시각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여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소개하고 팀 프로젝트로 만든 웹사이트와 개인적으로 공부해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신 스에오카 씨께서 프레젠테이션 시료 작성 전에 잘 만든 프레젠테이션 시료 샘플도 보여주시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한 것과 발표 자세 등 시료 작성 전 사전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3. OJT를 마치며

OJT 인턴십은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은 일본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인으로써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직접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물론, 보고서 작성 후 받은 피드백의 내용들은 좀 더 보고서 다운 문장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점 중 하나는 궁금한 점이 있나 항상 물어봐 주셔서 질문의 기회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배우는 연수이다 보니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들이 생겼고 담당자분들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일본의 비즈니스 상식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하면서 경어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회사를 소개할 경우와 인턴들에게 지시 사항을 얘기할 때 대부분 경어, 존경어, 겸양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취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꼭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